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임재 / 거룩하신 전능의 주 Agnus Dei / 주의 아름다움은	다같이
대표기도		원태연
*성경봉독	약 1:5~11	정혜원
말씀	낮음과 높음을 분별하는 지혜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세상을 사는 지혜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세상을 사는 지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낮음과 높음을 분별하는 지혜 (약 1:5~11)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함께 묵상중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인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특별히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으로서 건강한 믿음이 필요한 현대에 더 주목받는 글입니다. 야고보는 그 시작을 신앙인이 받는 시험으로 출발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험을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는 삶에 연결된 것으로서 경험의 영역이며 신념과 가치관이자 믿음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야고보가 시험받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 속 뜻은, 지혜가 있어야만 그 시험이 해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그 시험을 인내하며, 시험 뒤에 올 축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설명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보통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시험받을 때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때가 이 때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께서 새 길을 열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가장 큰 격은 '의심'입니다. 시련은 보통 오래 걸리고, 해결되기 직전까지 계속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치기가 쉽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바로 이 때가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중간에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그의 진단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내 방법도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도응답의 역사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두 마음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기도만 하고 내 할 바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따라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해야 하는 영역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누가 낮은 자고 누가 높은 자인가에 대해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9).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의 끝낼 무렵입니다. 따라서, 낮은 형제는 유다 백성이요, 부한 자는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전히 노예 신분이 그들에게 높음이 있을까요? 그 해석의 실마리는 이사야 40장 3-5절의 메시아 예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비록 종이랄 할지라도 높은 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종과 같이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신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회복과 존귀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높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을, 로마보다 로마의 억압 속에 있는 초대교인들을 높게 보셨습니다.

반대로, 지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부와 권력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잠시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라 할 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그들은 철저히 역사 속의 조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주의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말씀산책

청년의 시기에 이 진리를 가슴 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존귀하고 높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실제로는 낮은 자요, 세상에선 낮을 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은 높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폭정에 시달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익투스). 이 영성이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축복관은 세상적 축복관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을 무한 경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실하되 삶의 균형을 지키고, 바쁘지만 신앙과 일의 균형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자, 그 분 자체가 안식이십니다(마11:28). 하나님 안에 거하고 허락하신 환경에 자족할 줄 알며, 무한경쟁을 멈추고 자신과 주변을 볼 수 있는 삶을 삽니다. 안식과 사색이 있고 자아 성찰이 있으며 기쁨을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성취와 업적보다 신앙의 온전함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야고보가 권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2. 나의 기도는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의 간구에 가까운가요? (두 마음 vs 한 마음)
3. 성경의 높음과 낮음에 대한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다고 느끼시나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렵 사라져
내 안의 주의 나라 이루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시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승엽, 전하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 3월 25일(월) ~ 29일(금) 오전 6시, 본당

성금요일예배(성찬식)

- 3월 29일(금) 오후 7시, 본당

- 예배중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전교인 신앙 통독

- 이번주는 디모데후서 3장~히브리서 12장입니다.

세례, 입교, 유아세례

- 3월 24일 (2부 예배)

토요무릎기도회

- 이번 주 말씀 : 장준호 선교사 (알래스카)

2024 VBS 자원봉사자 모집

- 일시 : 6월 3일(월) ~7일(금) 9:30~12:00

- QR 코드를 이용해 신청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2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